

‘백제 세계유산’ 관람객 2배 급증

-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5곳 지난달 12만 1784명 방문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가까이 늘어 ‘등재 효과’ 톡톡

충남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람객 수가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 등재 1개월을 맞아 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부여 관북리유적을 뺀 백제역사유적지구 5곳을 탐방한 관람객 수는 모두 12만 178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2695명에 비해 무려 5만 9089명 많은 규모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관람객 수를 집계할 수 있는 매표소 등이 없어 집계에서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공주시가 4만 68명, 부여군이 8만 1716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3373명과 3만 5716명이 각각 증가했다.

유적지별 관람객 수는 지난해 7월 3493명에 불과하던 공주 공산성은 올해 7월 1만 9438명으로 1만 5945명이, 송산리고분군은 1만 3202명에서 2만 630명으로 7428명이 늘었다.

부여 부소산성은 3만 1117명에서 5만 7464명으로 2만 6347명이 늘었으며, 정림사지에는 1만 1616명보다 7731명 많은 1만 9347명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여 외곽에 위치한 능산리고분군(나성)도 지난해 3267명에서 4905명으로 1638명 증가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부여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백제 문화단지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6월

관람객 수가 급감했으나, 지난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힘입으며 관람객 수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평년 수준을 넘어 많게는 5배 가까이 관람객 수가 폭증한 점으로 볼 때,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8월 13일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전북도와의 공동 관광 홍보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위해 ‘도지사’와 함께 하는 유네스코 웹투어’를 개최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 인사동과 서울역 등에서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 유적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28일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한국중등학교장협의회 하계 연수집회에 참석해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초등여교장협의회에 참석해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을 펴고, 9월 이후에는 중국 여행사 관계자 초청 웹투어나 국내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중국·일본 해외 관광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 계획이다.

광복 70주년, 화합·평화의 장 펼쳤다

– 15일 독립기념관서 경축식…한마음 걷기대회 등 행사도 다채

충남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화합과 평화의 장을 펼쳤다.

8월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에서 개최한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통해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독립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미래 주역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330명을 비롯, 안희정 지사와 생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두북 공연으로 서막을 장식하고, 도내 각 지역에서 뽑힌 어린이 33명의 합창 공연과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광복절 동영상 시청, 독립유공자 표창,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축식에 앞서 안희정 지사는 송석두·허승욱 도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20여명과 함께 예산 충의사를 참배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안 지사는 또 경축식 이후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개관식에 참석했다.

도는 이와 함께 광복 70주년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4대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했다.

도민 참여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만세 퍼포먼스 개최, 주요 유적지 포토존 설치, 항일유적지 정화 활동 등을 펼치며, 경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청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통일 기원 프로젝트 등도 진행했다.



도정 청렴만족 '100점 만점에 94.2점'

– 자체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공사 업무 96.2점 '최고'

충남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 청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외부고객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반부패 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충청남도 외부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6월 도의 업무 이해 당사자 154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 업무는 보조금과 용역, 민원사무, 공사 등 4개 분야로, 조사 내용은 투명성과 적극성, 부패 경험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의 외부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94.2점으로, 도민 대부분 도정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분야별 점수는 공사 업무가 9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용역 95.3점, 보조금 93.2점, 인허가 등 민원사무는 92.6점 등으로 집계됐다.

실·국별로는 기획조정실 100점, 직속기관 97.7점, 농정국 9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만족도가 높은 요인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세 ▲부패 사례 미경험 등을 꼽았으며, 만족도 저해 요소로는 ▲담당자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을 지적했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원인에 대한 청렴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조사에서 지적된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도정 신뢰도를 높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식당 '미더유' 제등식 가져



충남연구원은 7월 31일 올해 새롭게 선정된 충청남도 로컬푸드 인증식당인 '미더유' 제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연 강현수 원장, 부여군 홍성목 부군수, 한상배 미더유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등식을 시행한 곳은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황토정'으로 올해 선정평가에서 최고점을 부여 받았으며, 이미 부여군에서 '8미정식'으로 꽤나 알려진 음식점이다.

충남연 강현수 원장은 "올해로 41개 미더유 업체가 인증되어 미더유가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말하며, "금년도부터 미더유 인지도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미더유 식당은 인증 38곳, 예비인증 3곳 등 총 41개 업체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공주(9), 부여(5), 보령(4), 금산(4), 예산(4), 서천(3), 계룡(3), 태안(2), 홍성(2), 아산(1), 천안(1), 논산(1), 당진(1), 청양(1) 등 이제는 충남 전역에서 로컬푸드 인증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충남 6차산업 상품, 대전시민 만난다.



대전시 중구 안영동 농협대전유통 하나로클럽에서 '충남 6차산업 안테나숍' 2호점 개장식을 가졌다.

안테나숍은 신제품 등에 대한 시장 및 수요 조사, 광고효과 측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점포로, 도는 지난 5월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 설치한 1호점과 이번 2호점을 통해 충남 6차산업 상품에 대한 도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6차산업 경영체들은 안테나숍을 마케팅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 5월 문을 연 1호점은 21개 경영체 82개 상품

이 입점해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2개월여 동안 5200만원, 1일 평균 74만 2000원의 매출을 기록,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테나숍 2호점은 농협대전유통 하나로클럽 1층 매장 21㎡ 규모로, 32개 경영체가 생산한 110개 상품이 판매된다.

주요 판매 상품은 천안 병천순대와 공주 맛밤, 논산 딸기, 서산 아로니아, 금산 흑삼, 서천 모시떡과 김, 태안 소금 등 각 시·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날 개장식은 안희정 지사와 도의회 강용일 농업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최민식 농협대전유통 대표이사, 조권형 농협 충남지역 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한 뒤 안테나숍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그동안 농촌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생산·유통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과 가격 경쟁력 취약,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안테나숍은 농촌과 도시의 새로운 만남의 장이자, 농촌 기업이 새로운 유통 채널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 뒤 대전시민들의 착한 소비활동을 당부했다.

개장식에 앞서 안희정 지사, 최민식 대표이사, 강현수 원장은 ‘충남 농업 6차산업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6차산업 상품 판로 확대와 안테

나숍의 효율적인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찾아가는 모니터링과 현장 코칭 등을 통해 6차산업 경영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홍보 등도 적극 지원한다.

세 기관은 또 6차산업 경영체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평회와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며, 안테나숍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이와 함께 안테나숍 입점 품목 중 판매 실적이 뛰어난 상품은 농협대전유통 하나로클럽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내 6차산업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와 안테나숍 운영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키로 했다.

2015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국제포럼



8월 20일 보령웨스트피아에서 안희정 지사, 김태흠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지방 및 중앙 관계 공무원, 도 자문단,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국제포럼은 ‘연안 및 하구의 건강한 복원’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 피터 에세링크 (Peter Esselink) 박사와 이동영·홍다시(Hongda Shi) 중국해양대학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우승범 인하대 교수가 각각 가졌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은 허재영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희 명지대 교수와 김경철 ‘습지와 새들의 친구’ 국장, 노영재 충남대 교수,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 등이 참가해 연안·하구의 성공적인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연구원, 광복70주년 기념 김삼웅 전.독립기념관장 초청 특강



충남연구원은 9월 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사진)을 초청해 '광복 70주년의 정언명령(定言命令)'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관장은 한말 국치 과정에서의 매국노와 우국세력의 활동을 시작으로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의 과제, 그리고 충남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려주

었다.

김삼웅 전관장(1943년 전남 완도 출생)은 대한매 일신보 주필과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신홍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백범 김구 전집> <몽양 여운형 평전> <약산 김원봉 평전> <안중근 평전> <장준하 평전> 등 다양한 집필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현대사연구가이자 정치 평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